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5호 [루게 제25093호] 주체104(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 제7차대회를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총공세를 과감히 벌려나가자

총진군의 돌파구 앞장에서 열어가리

전력공업부분의 로동계급 생산돌격전에 결기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려는 애국총성의 열의가 전국의 동력기지마다에서 활발한마당 새차게 분출하고있다.

당의 강성국가건설의업을 전력중심으로 역세게 발달하는 전력공업부분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례없는 로동적성과를 이룩하고 영광의 대회장에 승리의 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릴 비상한 각오와 투지에 넘쳐 생산돌격전에 산악같이 총진군해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형부분과 중요공업부분들을 주력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은 오늘 총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선으로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현행전력생산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정비보수를 빠른 시일안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회력발전소들을 맡은 일군들이 전투장마다에서 전격의 돌파

구를 힘있게 열어가려고있다. 현장으로 달려나간 일군들은 보일러와 라인발전기 앞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하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불꽃튀는 생산전투를 벌리고있다.

수력발전부분을 담당할 일군들은 각지 발전소들의 물확보정형과 수력구조물상태를 빠짐없이 료해장악하고 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자기마한 이상요소도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물관리 및 설비운영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각지 회력발전소들에서 새로운 생산적의업의 불길이 새차게 타오르고있다.

북창의 대동력기지가 전력중심투쟁에서 불도가나미양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수력발전부분의 불빛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빛나고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같이 간직한 이곳 로동계급은 전투장마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의 불타는 총성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10호, 7호,

4호기에 대한 대보수전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어 종전보다 발전설비들의 가동대수를 더욱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청년직장과 3직장의 로동계급이 기술정장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킬 때 2직장과 4 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보이러제동에 대한 급수 및 공기조절과 진공계통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있다.

북창회력발전전환기업소에서 각지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뜻깊게 맞이할 불타는 열의가 전력중심의 용음으로 이어지고있다.

9월과 10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대규모수력발전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총진한 기세로 연애와 취수공을 비롯한 수력구조물들의 정비보수를 다그치며 수차날개들을 새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매일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전세대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잇듯이 이어가며 수동발전소와 회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생산투쟁을 과감히 벌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수원m의 취수로를 질적으로 정리하여 자체의 생산상태를 더욱 튼튼히 다진 강계청년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일일대로 내밀면서 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드센 박자를 가하고있다.

부진발전소들의 기술자, 기능공들도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속에서도 수력구조물보수사업을 완강하게 내밀면서 매일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태천발전소와 삼수발전소, 서두수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들에서 현행전력생산을 다그치는 동시에 수차날개들을 새로 교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발전효율을 부쩍 높이고 있다. 남강, 장진강, 대동강발전

소의 로동계급도 물관리를 짜고들면서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보장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총진군의 앞장에서 승리의 전격으로 힘차게 열어나갈 열의에 충실하게 총진군해나선 전력공업부분 로동계급의 불타는 총성이 애국총성과 헌신적인 로동투쟁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전력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평양 회력발전전환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립락 작음

조국강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열의

전국적으로 300여km의 도로 기술개진, 600여km의 강하천 정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동적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가 분출되고있다. 벌써 나신 각지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가을철국토관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전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00여km의 도로를 기술개진하고 600여km의 강하천을 정리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켰다.

이것은 당의 국토관리정책관철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조국강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나가는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철석의 의지와 굳센 의욕이 반영된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국토관리사업에서는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새로운 전란을 일으켜 당 제7차대회를 로동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조직적지원을 짜고들었다. 각지 당조직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전의 집중모화, 연속모

화, 명종모화를 들이대었다. 도로기술개진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강원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러 지역의 도로기술개진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낸 기세로 계속된 전투를 벌리고있다. 도에서는 법도군의 도로복합공사중 중요과제를 제기하고 기본계획을 여기에 집중하였다. 수십km구간의 도로복합을 원래보다 평균 2m 확장할 목표를 세운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여 실천적도범으로 대담하게 임하였다. 당의 혁명사상과 배후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품고서 삼야 위장한 무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의 힘을 막을수 없게 있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산악같이 분발해나선 근로자들은 절망과 함몰로 바위를 깨면서 일자리를 쫓아내었다.

강도, 이천, 평강, 세포동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기술개진으로 수십리구간의 도로복합을 확장하고 안전보장목표와 안전보장목표를 세웠다.

강강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십km구간의 도로복합과 구배나누기, 복선화기 등을 하면서 평탄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

였다. 도에서는 삼지연-대흥간-백암도-도로기술개진공사를 책임지고있는 도당 부처를 비롯하여 많은 도당 부처를 이끌고 도로복합공사에 나서고있다. 안전보장목표와 안전보장목표를 세우고, 복선화기, 안전보장목표 새우기 등을 하였다.

남포시, 평양시, 평안북도의 일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자랑스런 성과

향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망간합금철생산공정 새로 확립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여 생산적의업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오르고있는 때에 향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망간합금철생산공정이 새로 일떠서 생산을 시작한 소식에 총공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생산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 새로 꾸러진 망간합금철생산공정은 우리 나라의 원료에 의거한 철생산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한사칼같이 떨쳐나선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애국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생명선으로 여기고 망간합금철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망간합금철은 강철에서 탈산작용을 하고 합금화되어 강철의 당금세기와 굳기, 내마모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강철생산에 필요한 망간합금철은 품위가 높은 광석을 리용하는것으로 되어있다.

망간합금철련합기업소의 과학자들과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전반을 활활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철강재와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웅장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주체98(2009)년과 주체99(2010)년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련합기업소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철생산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망간합금철련합기업소의 원료조건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것만큼 과학기술력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다퉀 풀어주었다.

련합기업소기술자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여러 지방에 매장되어있는 망간광석에 대한 산지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알맞은 합리적인 배합비율과 조성을 완성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크게 이바지할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전 혁 철

합쳐 우리 나라에 흔한 저품위 망간광석을 가지고도 질 높은 망간합금철을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달라붙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대담하게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장군님의 유훈관철전, 당정책관철전으로 불리우시는 정치사업들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갔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내기도 적극 꾀미어주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망간합금철생산공정에서의 원료조건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것만큼 과학기술력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다퉀 풀어주었다.

망간합금철련합기업소의 과학자들과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힘차게 전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시대의 앞장에서 폭풍처럼 내달리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미려한 선봉투사, 강성국가의 문명을 남김없이 다는 영웅적의 창조자가 되기 위한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당을 따라 언제나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며 창조와 위업을 대고조기대를 빛내이는 청년열군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그 과업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조직적지원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우선 청년동맹원들이 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최후로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그 과업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조직적지원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우선 청년동맹원들이 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최후로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그 과업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조직적지원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우선 청년동맹원들이 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최후로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그 과업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조직적지원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파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청년동맹원들이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힘차게 전진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여기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그 과업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조직적지원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우선 청년동맹원들이 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최후로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그 과업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조직적지원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우선 청년동맹원들이 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최후로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그 과업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총진군해나가기 위한 조직적지원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조를 이어가며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다신만큼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백두산칼바람은 여기 백두산구룡이 아닌 청년들이 있는 온 나라 대동진군투쟁장마다에서 새차게 휘날리고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청년동맹원들이 청춘의 열의를 앞세워 당의 혁명사상과 배후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품고서 삼야 위장한 무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의 힘을 막을수 없게 있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산악같이 분발해나선 근로자들은 절망과 함몰로 바위를 깨면서 일자리를 쫓아내었다.

강도, 이천, 평강, 세포동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기술개진으로 수십리구간의 도로복합을 확장하고 안전보장목표와 안전보장목표를 세웠다.

강강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십km구간의 도로복합과 구배나누기, 복선화기 등을 하면서 평탄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

동해가 끓는다, 포구마다 만선이 휘날린다

수산성아래 각지 수산사업소들이 일제히 도무메기잡이전투에 진입, 높은 어획고 기록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당 제7차대회를 커다란 로동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전투적의업에 결사투쟁의 투쟁으로 화답해나갔다.

종합전 자료에 의하면 동해지역의 수산사업소들이 수산성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지난해보다 보름이상 앞당겨 일제히 도무메기잡이전투에 진입하였다. 여러척의 가공모선들이 신속히 어장을 차지하고 100여척에 달하는 고기배들은 집중과 분산의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량의 물고기를 잡았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생산성으로 수산성이 수산성으로부터 화답해나가는 조선로동계급의 투쟁정착의 남김없는 파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정착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성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량에 보다황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수산성의 일군들은 농산과 육산, 수산물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

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제시된 전투적의업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갔다.

수산성에서 이번에도 도무메기잡이전투를 잘하였다. 연유보장과 배수리, 어구준비는 물론 중심어장에서의 집단적인 어로전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으며 원산, 풍천, 고성 등 여러 지역의 하류설비와 가공시설들, 부두들을 증설정착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물고기들을 가공모선들과 중심어장의 가까운 포구들에서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하였다.

뚜렷한 작전밑에 당, 행정적 일군들과 비롯한 생산의 수심명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도무메기잡이전투에 돌출하는 편없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서 능력이 큰 가공모선의 급증설비들과 가공시설비들이 짧은 시간에 정비되고 40여척에 달하는 고기배들을 모다시 집중적인 어로전투에 진입시킬수 있게 되었다.

동해 북쪽으로부터 북쪽을 위치한 수산사업소들에서 전투적인 어로투쟁에 진입하기 위한 과감한 승리가 벌어졌다.

수산물관리국에서 수산사업소들에서는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고기배들의 정비와 어구준비를 앞세웠다. 동시에 어로공들이 도무메기잡이와 관련한 앞선 어로방법들을 습득하고 중심어장에서의 집중과 분산적인 어로작업에 대하여 잘 알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10월 하순 바다를 손꼽아 못 주시하던 함성들에서도 도무메기잡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연속 날아들었다. 수산성에서는 즉시 각 수산사업소들의 가공모선들이 고기배들과 가공모선을 신발하여 최우하는 도무메기잡이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한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개시하였다.

동해지역을 따라 맹렬히 공격하는 전투함선들마냥 단단한 준비를 갖춘 각지 수산사업소들의 고기배들이 강풍으로 향하였다. 제일먼저 중심어장을 차지한 신로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고기배들이 기세드높이 편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만선의 배고풍을 리를 높이 올리였다. 함경남도, 함경북도수산물관리국에서 수산사업소들이 신속히 어장에 진출하여 날아오는 성과를 확대하였다.

각지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여러가지 정황에 대처한 어로방법을 받아들이고 불리한 바다날씨조건에도 아랑곳없이 과감한 어로전투를 벌리고있다.

지휘선에서는 과학적인 물고기잡이방법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산일군들과 도수산관리국 일군들이 타고있다. 그들은 편대들사이를 총휘무전하면서, 선장이 되어 조타를 잡기도 하고 어로공들과 함께 그물도 당기면서 어로전투를 능숙하게 휘하고있다.

수산성에서는 수시로 달라지는 어획조건에 따르는 민첩한 대책을 세워주며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도모하고 수산사업소들의 어로공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전 성 삼

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제시된 전투적의업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갔다.

수산성에서 이번에도 도무메기잡이전투를 잘하였다. 연유보장과 배수리, 어구준비는 물론 중심어장에서의 집단적인 어로전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으며 원산, 풍천, 고성 등 여러 지역의 하류설비와 가공시설들, 부두들을 증설정착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물고기들을 가공모선들과 중심어장의 가까운 포구들에서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하였다.

뚜렷한 작전밑에 당, 행정적 일군들과 비롯한 생산의 수심명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도무메기잡이전투에 돌출하는 편없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서 능력이 큰 가공모선의 급증설비들과 가공시설비들이 짧은 시간에 정비되고 40여척에 달하는 고기배들을 모다시 집중적인 어로전투에 진입시킬수 있게 되었다.

동해 북쪽으로부터 북쪽을 위치한 수산사업소들에서 전투적인 어로투쟁에 진입하기 위한 과감한 승리가 벌어졌다.

50년의 비결 -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이른아침 우리는 마두산으로 오르는 산길을 걸었다. 다소한 아침해살이 산촌목의 풍치를 즐기며 우리의 마음은 상쾌하게 서려있었다. 산기슭에 유성하게 서려있는 실안개, 은구슬처럼 반짝이는 이슬방울이 맺힌 나무잎들, 산속의 송진냄새, 싱그러운 풀냄새가 풍겨오는 청신한 아침공기...

마두산으로 오르는 답사자들의 흐름에 섞이면서 우리의 위제는 산기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원래 혁명전적지가 자리잡고있는 마두산중턱까지 번듯한 도로가 뻗어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맞은편의 이산길을 택하게 된것은 새로 정해진 마두산혁명전적지로서의 답사길로 답사자들과 함께 행군을 하면서 전적지취재를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우리가 평양에서 온 기자들이라는것을 알고 반기면서 길동무로 삼아준 답사자들은 안주시의 독산동과 남동동의 녀맹초급인공과 녀맹원들이었다.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과정에 뜻깊은 10월을 맞이하며 안주시에서는 꾸러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독산동과 남동동의 녀맹초급단체가 큰일을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리금순, 김옥경동무들은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답사하면서 배우의 혁명정신을 삶과 투쟁의 지양반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절의도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한가정의 살림살이에 그치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 건설구상을 역세게 받들려는 지향에 넘쳐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조선녀성들의 강직함과 끈끈의지를 느꼈수 있었다.

우리는 반시간정도 산길을 따라 걸어 마두산혁명전적지가 자리잡고있는 산마루에 올라섰다.

넓은일나무들과 비늘일나무들, 참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선 푸른 숲은 끝이 보이지 않을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배우의 천원원시림속에 들어선듯 하였다.

마두산의 글밭이여, 천만심장에 신념으로 고통치라

절세위인의 발자취 력력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아서

혁명신념들의 고귀한 넋을 천추 만대에 전해주려는듯 푸르려 실에 이는 밀림속에 서니 장편사사시 《매두산》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리라— 우리 신념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신념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 마두산의 한구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 하나의 조약돌도 무심히 대할수가 없었다.

일체의 총칼이 조국강산을 뒤덮었던 엄중한 그 세월 위대한 수령님을 명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위하여 투쟁에 나섰던 혁명신념들의 고귀한 넋과 그들의 영혼을 마두산의 푸른 숲이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여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사를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이곳에 오시었을 때에는 한창 작업중이어서 여기저기에 일감들이 널려있었다고 한다.

그날 정리되지 못한 작업장을 찾았지 않았고 그 구호문헌이 보존교양실을 돌아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호문헌은 우리 당의 혁명전력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하는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력사의 증경자라고 할수 있다고, 이제는 우리결에 우리 당의 혁명

전력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하는것을 말해줄 혁명의 1세대인 항일혁명투사들도 몇몇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전사령을 우리는 구호문헌들을 세대를 이어가며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었다.

전경사관앞에서 강사의 해설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27 (1938)년 3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 비서처 성원을 책임자로 하는 소부대를 안주일대에 파견하시어 비밀근거지를 꾸리도록 하시었다는 강사의 이야기는 답사자들을 력사의 그 나날에 이끌여 갔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여기 안주지구를 그처럼 중시하시였는가를 사회경제적으로나 자연지리적으로도 매우 유려한 지점에서 꾸러진 마두산밀명, 상산밀명, 전산밀명, 특색산밀명들을 전경사관앞에서 보면서 잘 알수 있었다.

이 일대는 높은 산밭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있어 유적활동에 적합하고 주요철도선들과 도로들을 가까이하고있어 항일대전의 중요한 요충지일뿐아니라 서해복장지대를 기고있어 필요한 식량을 조달하기에도 유리한 지역이었다.

《회합참가자들이, 여기서 장악하면 일제 심장 허튼다.》이 구호문헌의 글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마두산의 전략적의의는 컸다.

안주지구 비밀근거지가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작전시기에는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게 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었다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국내길이에 이렇듯 강력한 비밀근거지를 꾸리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당과 비범한 평군술을 다시금

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우리는 한 구호문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마두산을 배우산으로!》, 이 글밭을 새긴 혁명신념들의 심장마다에 고통전것은 과연 무엇이였는가.

마두산과 멀리 떨어져있는 혁명의 성산 배우산,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배우산을 마음속에서 그리며 한자,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들의 근거지에 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두산을 배우산과 같이 혁명의 보루로 더욱 든든히 꾸릴려는 맹세를 담아 또 한자... 새겨볼수록 마두산의 무게를 안아보게 하는 구호문헌이었다.

마두산밀명과 여러 밀명들의 구호문헌들 하나하나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가.

《배우장수 장도칠고 삼천리 굽어보다, 《천출천하명인 김일성장군 배우너저 김정숙 그들의 계승은 평평명성 조선의 3대통은 민세》...》

이 일대에서 수많은 혁명적인 구호문헌들이 나왔다는 사실처럼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항일대전의 나날 국내길에서 배우산3대장군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면 우리 인민들의 지향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마두산을 중심으로 한 안주지구에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 밑에 전진행진의 불길이 얼마나 거세게 타번졌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얼마후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아와의 본래위치에 전시되어있는 구호문헌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오를 지은 인민군인들과 군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발걸음속에서 그들의 지향에 이어가고있고 그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빼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항일의 혁명신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가시범불길을 헤치며 피와 땀으로 만고의 광명사를 창조하였으며 그들이 지녔던 수령절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맥박치고있습니다.》

강사의 말이 의하면 해방전 이

못하는 우리에게 강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때로부터 전적지를 찾는 답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말하였다.

답사길량으로 소나무, 참나무 등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밀림의 유구한 역사를 말해주는듯 강대나무, 전대나무들이 마두산혁명전적지의 정서를 더 깊게 하였다.

승업한 경적에 힘써 발걸음을 재촉하느라니 온 나라가 다 알고있는 유명한 구호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가 새겨진 나무알에 이르러 되었다.

얼마나 깊은 사연을 안고있는 구호나무의 글밭인가.

지난해 1월 뱀뱀 추위로 아랑곳하지 않고 오해도록 이 글밭을 보고 또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령님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항일혁명신념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정말 훌륭한 구호문헌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은 곧 신념이라고,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다고, 혁명적정신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몇몇할수 있다고 심오한 의미를 담으시어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천만의 심장마다에 창된 인생철리, 혁명의 원리를 새겨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을 자자구구 되새겨볼수록 그날의 력사적화국이 무엇이 어찌와 우리의 가슴은 뭉클해들었다.

신념의 글밭앞에서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답사자들모두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의 글밭을 심장에 새기며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고이 그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면서 신념의 구호 문헌을 배경으로 승업한 자세로

사전을 찍었다.

그 광경을 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교과서나 도서를 읽었다고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다 안다고 할수 없다. 귀중한 혁명전통이 이룩된 혁명전적지를 직접 찾아가 걸으면서 보고 듣고 직접 혁명신념들이 지녔던 고귀한 정신세계를 깊이 체득할수 있다는것이다.

우리에게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함에 대한 당의 의도에 담긴 깊은 의미가 새롭게 안겨졌다.

참으로 마두산혁명전적지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시지도는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절사옹위정신과 결별한 투쟁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준 력사적장기였다.

세월이 흐르면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달라지지만마련이다. 하지만 배우들의 혈통을 이은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혁명정신이며 대를 이어 굳세게 이어져야 하는것이 바로 혁명의 피조물이다.

혁명의 피조물은 결코 저절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령정의 높은 뜻을 따라야 혁명의 피조물은 곳곳이 이어지며 혁명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전진할수 있다는것이 지나온 조선혁명사가 보여준 진리이다.

진정 또 한분의 배우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온 나라에는 배우의 혁명정신, 배우의 철마정신을 더욱 새겨내세워야 한다.

우리는 마두산혁명전적지답사를 마치고 떠나는 군인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의 심장마다에 늦겨있는 새한 고통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언제나 그 어디서나 마두산에 오르려. 배우의 길을 걸을 때에도, 시련의 고통을 넘을 때에도 마두산의 글밭을 안고 살리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리라! 문헌을 배경으로 승업한 자세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위원장

양골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우안다 양골라공화국 대통령

주제 에두아르두 두스 신푸스각하

나는 양골라독립 40돐을 맞으며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헌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11월 5일 평양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상기 학습

통천군 신암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항일혁명신념들이 지녔던 투철한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로와 군로단체조직에서 주별, 월별로 항일혁명전적지들의 회상기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꾼들부러가 회상기의 내용을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에 대해 대한 사명판공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항일혁명신념들의 투쟁기풍을 적극 본받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쪽증상선으로 빛내이는 길에서 선군시대 농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자 열렬히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마두산의 울창한 숲속을 걷는나의 가슴은 승업한 경적에 힘써졌다.

구호나무의 글밭들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실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펼쳐나섰던 혁명신념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있었기때문이었다.

조용히 눈감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 노래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 세월의 모진 눈비마저 지울수 없었던 이 글밭은 빨색산들의 당부되어 심장의 박동을 더해주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수필 | 력사의 메아리

지구의 일제순사들은 구호나무들을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날뛰었다고 한다.

항일의 빨색산대장의 존함만 들이도 벌벌 떨던 들들인제라 계승들이 산에 올라가 구호나무를 없애버리자니 그렇게 할 용단이 내리지지 않았고 또 그대로 못 붙이고 방심해두자니 《대일부제》의 순사복을 입은 체면이 서지 않았다.

하여 들들은 글을 모르는 이곳 사람들에게 산에 올라가 나무에 의지한 글을 도끼로 찍어오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주겠다고 열리면서 산으로 울려보냈다.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그처럼 갈망하던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신승기풍의 유적전력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뜩적인 타격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항일의 혁명신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가시범불길을 헤치며 피와 땀으로 만고의 광명사를 창조하였으며 그들이 지녔던 수령절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맥박치고있습니다.》

강사의 말이 의하면 해방전 이

안주시며 천하를 위락력하시려는 배우산청년장군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들들의 장으로 산으로 올라간 인민들은 어느 나무의 정점을 밟고 거기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 들들에게 바치었다.

인민들의 애국적인 소행에 의하여 구호나무들은 보존되었다.

결과 이 지구의 산들에는 아직도 도끼자리가 나있는 나무들이 많다고 한다.

그이의 천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오랜 세월 자연의 풍화속에 묻혀 버릴만 하였던 수많은 구호나무들이 도처에서 발굴되었으며 영원히 영구보존할수 있는 과학기술문제들도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다.

안주지구 비밀근거지들이 세간도 수많은 구호나무들이 발굴되었다.

혁명신념들이 남긴 구호나무의 글밭들을 혁명의 고귀한 유산으로 깊이 빛내이기 위하여 우리 장관님께서 바치신 헌신과 로고의 세계를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전통은 계승해야 빛난다는 말이 있다.

지난 시기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마두산혁명전적지의 구호나무글밭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배우산과 더불어 마두산의 신념의 글밭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배우의 혁명전통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혁명의 만년제보로 귀중히 여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승고한 사상과 의도를 자기의 신념으로 새겨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기 때문 마두산의 신념의 글밭들은 더욱 빛나게 되었다.

마두산으로, 마두산으로 답사대는 굽이쳐호르코 당을 따라 혁명의 천리길을 역세게 걸어갈 천만의 심장들의 목소리가 조국강선에 영원한 신념의 메아리로 울려전진다.

본사기자

당,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리을설동지의 령구를 찾아 조의 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자 조선인민군 원수인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당,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조직원들은 배우산절세위인들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한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으로 결사

보위하였으며 인민군대를 무적 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친 혁명투사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안고 조의식장을 찾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무력기관들,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방항공군, 로동적위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었다.

국가장외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세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손님들은 외교단과 무관단, 로씨야방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을 정중한 다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전우로서 나라

명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세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손님들은 외교단과 무관단, 로씨야방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들을 정중한 다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전우로서 나라

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그들은 조의록에 글을 남기었다.

이에 앞서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조 외교단, 무관단과 해외동포들 리을설동지의 령구를 찾아 조의 표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방항공군, 로동적위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었다.

명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과

한W의 전기라도 극력 절약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자

전력의 효과적 리용과 그 방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석탄공업부문과 화력발전소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를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담당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전기기계를 전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올해 전부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신 전력공산에 못지않게 생산된 전력을 극력 절약하며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얼마전 우리는 전력공업성의 해당 일군들을 만나 이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나라의 전력사정에 맞게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도는 무엇인가.

국장 김명철: 무엇보다 먼저 전력부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이와비와 같이 전력생산과 소비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다. 전력생산량에 맞게 전력부하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 전압과 주파수를 비롯한 전기의 질적지표들이 떨어지며 그것은 전력생산자와 소비배전인원, 소비자를 포괄하는 전선전력전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부하조절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여 국가전력체계의 주파수가 1Hz만 떨어져도 많은 량에 달하는 전력도중손실을 보

나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공급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잘 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송배전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전국적범위에서 과학적인 전력관리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드세 박차를 가하면서 그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무던히 끌어올리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기자: 전력의 효과적 리용에서 과학적관리체제가 큰 의의를 행하고 있다.

국장 김명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적관리체제를 더욱 짜고드는 것은 생산된 전력의 효과적리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오늘날의 현실조건에 맞게 과학적관리체제를 잘 운영하는데는 부하관리와 전력관리체제가 중요한데, 특히 자강도에서는 도급체제의 일원화를 실현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성상향에서 그 덕을 토포하고 있다.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전력관리방법을 받아들여 발전소, 변전소들과 송배전선로들에 대한 실시간감시를 진행하고있다.

해당 송배전체제에 투입된 공장, 기업소, 기관들의 전력리용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하여 부하전력관리를 과학화할수 있는 체계가 수립된 결과 누구

나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공급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잘 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송배전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전국적범위에서 과학적인 전력관리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드세 박차를 가하면서 그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무던히 끌어올리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기자: 전력의 효과적 리용에서 과학적관리체제가 큰 의의를 행하고 있다.

국장 김명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적관리체제를 더욱 짜고드는 것은 생산된 전력의 효과적리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오늘날의 현실조건에 맞게 과학적관리체제를 잘 운영하는데는 부하관리와 전력관리체제가 중요한데, 특히 자강도에서는 도급체제의 일원화를 실현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성상향에서 그 덕을 토포하고 있다.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전력관리방법을 받아들여 발전소, 변전소들과 송배전선로들에 대한 실시간감시를 진행하고있다.

해당 송배전체제에 투입된 공장, 기업소, 기관들의 전력리용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하여 부하전력관리를 과학화할수 있는 체계가 수립된 결과 누구

나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공급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잘 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송배전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전국적범위에서 과학적인 전력관리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드세 박차를 가하면서 그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무던히 끌어올리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기자: 전력의 효과적 리용에서 과학적관리체제가 큰 의의를 행하고 있다.

국장 김명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적관리체제를 더욱 짜고드는 것은 생산된 전력의 효과적리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오늘날의 현실조건에 맞게 과학적관리체제를 잘 운영하는데는 부하관리와 전력관리체제가 중요한데, 특히 자강도에서는 도급체제의 일원화를 실현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성상향에서 그 덕을 토포하고 있다.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전력관리방법을 받아들여 발전소, 변전소들과 송배전선로들에 대한 실시간감시를 진행하고있다.

해당 송배전체제에 투입된 공장, 기업소, 기관들의 전력리용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하여 부하전력관리를 과학화할수 있는 체계가 수립된 결과 누구

나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공급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잘 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송배전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전국적범위에서 과학적인 전력관리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드세 박차를 가하면서 그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무던히 끌어올리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기자: 전력의 효과적 리용에서 과학적관리체제가 큰 의의를 행하고 있다.

국장 김명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적관리체제를 더욱 짜고드는 것은 생산된 전력의 효과적리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오늘날의 현실조건에 맞게 과학적관리체제를 잘 운영하는데는 부하관리와 전력관리체제가 중요한데, 특히 자강도에서는 도급체제의 일원화를 실현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성상향에서 그 덕을 토포하고 있다.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전력관리방법을 받아들여 발전소, 변전소들과 송배전선로들에 대한 실시간감시를 진행하고있다.

해당 송배전체제에 투입된 공장, 기업소, 기관들의 전력리용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하여 부하전력관리를 과학화할수 있는 체계가 수립된 결과 누구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대흥청년영웅광산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총동원하여 불길높이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과 함께 전기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절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이들은 전기절약에비하여 다른것을 작각하고 얼마전에 마그네사이트가 분공장 송배전공공사와 무학분광산 압축공기계통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 경소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사이트광석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재량과 대우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자 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올해 정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한자리에 모인 광산의 일군들은 당장전 일흔흔이 되는 올해 광물생산을 늘이며 10여개의 공장건설 및 건물개건을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 수업을 위한 치밀한 조직사업까지 이루어지자 협의회에 참가한 일군들은 올해 전투승리에 대한 신심과 확관을 하려 손을 흔들어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

대흥청년영웅광산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총동원하여 불길높이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과 함께 전기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절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이들은 전기절약에비하여 다른것을 작각하고 얼마전에 마그네사이트가 분공장 송배전공공사와 무학분광산 압축공기계통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 경소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사이트광석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재량과 대우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자 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올해 정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한자리에 모인 광산의 일군들은 당장전 일흔흔이 되는 올해 광물생산을 늘이며 10여개의 공장건설 및 건물개건을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 수업을 위한 치밀한 조직사업까지 이루어지자 협의회에 참가한 일군들은 올해 전투승리에 대한 신심과 확관을 하려 손을 흔들어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

대흥청년영웅광산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총동원하여 불길높이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과 함께 전기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절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이들은 전기절약에비하여 다른것을 작각하고 얼마전에 마그네사이트가 분공장 송배전공공사와 무학분광산 압축공기계통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 경소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사이트광석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재량과 대우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자 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올해 정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한자리에 모인 광산의 일군들은 당장전 일흔흔이 되는 올해 광물생산을 늘이며 10여개의 공장건설 및 건물개건을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 수업을 위한 치밀한 조직사업까지 이루어지자 협의회에 참가한 일군들은 올해 전투승리에 대한 신심과 확관을 하려 손을 흔들어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

우리 식 수자식배전반개발에 박차를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 우리 식의 수자식배전반을 자체로 제작하고있다.

이곳 기술일군의 말에 의하면 설계방식에 새로고 기술적특성값들이 수입산에 못지않고 있다. 전압, 전류, 력을 일시간 측정할수 있는 수자식배전반은 직산, 주파수인정 등의 기능까지 수행하므로 전력부하관리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

결과 전력정보관리체제의 CNC화를 실현하여 무인변전소 건설할 때 내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업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함경남도송배전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로, 자제,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판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수자식배전반을 자체로 개발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특히 지배인 유영학동무는 수자식배전반을 자기 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고 뜨거운 정성을 바쳐가는 자들이야말로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으로 심장을 가득 채우고 인민이 바라는 이, 미래를 위한 열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참된 일군들이 아니겠는가.

미려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오기 위해 투쟁하는 이런 미더운 일군들이 있기에 새 세계의 유영학동무와 함께 하는 것은 확신으로 교원들모두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본사기자

우리 식 수자식배전반개발에 박차를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 우리 식의 수자식배전반을 자체로 제작하고있다.

이곳 기술일군의 말에 의하면 설계방식에 새로고 기술적특성값들이 수입산에 못지않고 있다. 전압, 전류, 력을 일시간 측정할수 있는 수자식배전반은 직산, 주파수인정 등의 기능까지 수행하므로 전력부하관리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

결과 전력정보관리체제의 CNC화를 실현하여 무인변전소 건설할 때 내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업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함경남도송배전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로, 자제,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판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수자식배전반을 자체로 개발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특히 지배인 유영학동무는 수자식배전반을 자기 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고 뜨거운 정성을 바쳐가는 자들이야말로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으로 심장을 가득 채우고 인민이 바라는 이, 미래를 위한 열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참된 일군들이 아니겠는가.

미려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오기 위해 투쟁하는 이런 미더운 일군들이 있기에 새 세계의 유영학동무와 함께 하는 것은 확신으로 교원들모두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본사기자

우리 식 수자식배전반개발에 박차를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 우리 식의 수자식배전반을 자체로 제작하고있다.

이곳 기술일군의 말에 의하면 설계방식에 새로고 기술적특성값들이 수입산에 못지않고 있다. 전압, 전류, 력을 일시간 측정할수 있는 수자식배전반은 직산, 주파수인정 등의 기능까지 수행하므로 전력부하관리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

결과 전력정보관리체제의 CNC화를 실현하여 무인변전소 건설할 때 내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업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함경남도송배전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로, 자제,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판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수자식배전반을 자체로 개발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특히 지배인 유영학동무는 수자식배전반을 자기 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고 뜨거운 정성을 바쳐가는 자들이야말로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으로 심장을 가득 채우고 인민이 바라는 이, 미래를 위한 열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참된 일군들이 아니겠는가.

미려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오기 위해 투쟁하는 이런 미더운 일군들이 있기에 새 세계의 유영학동무와 함께 하는 것은 확신으로 교원들모두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본사기자

우리 식 수자식배전반개발에 박차를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 우리 식의 수자식배전반을 자체로 제작하고있다.

이곳 기술일군의 말에 의하면 설계방식에 새로고 기술적특성값들이 수입산에 못지않고 있다. 전압, 전류, 력을 일시간 측정할수 있는 수자식배전반은 직산, 주파수인정 등의 기능까지 수행하므로 전력부하관리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

결과 전력정보관리체제의 CNC화를 실현하여 무인변전소 건설할 때 내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업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함경남도송배전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로, 자제,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판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수자식배전반을 자체로 개발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특히 지배인 유영학동무는 수자식배전반을 자기 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고 뜨거운 정성을 바쳐가는 자들이야말로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으로 심장을 가득 채우고 인민이 바라는 이, 미래를 위한 열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참된 일군들이 아니겠는가.

미려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오기 위해 투쟁하는 이런 미더운 일군들이 있기에 새 세계의 유영학동무와 함께 하는 것은 확신으로 교원들모두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본사기자

해마다 수만kWh의 전기를 절약

수도려객운수국 무궤도전차수리공장에서

절약된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그 정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한편에 여러대가 동시에 가동하여도 열에너지를 손실없이 적으로 전력계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것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 공전에 리용하던 2대의 일반교류용접기를 개조하여 새형의 용접기 3대를 충분히 만들수 있는 우적이 있다.

원장, 전직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지난 기간 자기 단위에 소비되는 크지 않은 전력도 나라의 재부라는 올바른 관점에서 적은 전력으로 무궤도전차수리를 원만히 할수 있도록 제반과 공구, 생필품급반을 비롯한 여러 현상들에서 리용된 용접기를 전부 새형의 용접기들로 개조작전을 펴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당의 과학기술진흥사상을 높이 받들고 중앙과학기술총보사 리빙호동무는 공장에서 가동하는 설비들을 경제적인데가 큰 전기절약형의 설비들로 개조하는 과정에 창조적지혜와 힘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를 포함한 오랜 기능공들은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설비를 거듭하면서 선들의 절연성을 높이는 등 승승조로 일

수도려객운수국 무궤도전차수리공장에서

절약된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그 정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한편에 여러대가 동시에 가동하여도 열에너지를 손실없이 적으로 전력계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것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 공전에 리용하던 2대의 일반교류용접기를 개조하여 새형의 용접기 3대를 충분히 만들수 있는 우적이 있다.

원장, 전직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지난 기간 자기 단위에 소비되는 크지 않은 전력도 나라의 재부라는 올바른 관점에서 적은 전력으로 무궤도전차수리를 원만히 할수 있도록 제반과 공구, 생필품급반을 비롯한 여러 현상들에서 리용된 용접기를 전부 새형의 용접기들로 개조작전을 펴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당의 과학기술진흥사상을 높이 받들고 중앙과학기술총보사 리빙호동무는 공장에서 가동하는 설비들을 경제적인데가 큰 전기절약형의 설비들로 개조하는 과정에 창조적지혜와 힘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를 포함한 오랜 기능공들은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설비를 거듭하면서 선들의 절연성을 높이는 등 승승조로 일

수도려객운수국 무궤도전차수리공장에서

절약된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그 정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다. 한편에 여러대가 동시에 가동하여도 열에너지를 손실없이 적으로 전력계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것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 공전에 리용하던 2대의 일반교류용접기를 개조하여 새형의 용접기 3대를 충분히 만들수 있는 우적이 있다.

원장, 전직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지난 기간 자기 단위에 소비되는 크지 않은 전력도 나라의 재부라는 올바른 관점에서 적은 전력으로 무궤도전차수리를 원만히 할수 있도록 제반과 공구, 생필품급반을 비롯한 여러 현상들에서 리용된 용접기를 전부 새형의 용접기들로 개조작전을 펴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당의 과학기술진흥사상을 높이 받들고 중앙과학기술총보사 리빙호동무는 공장에서 가동하는 설비들을 경제적인데가 큰 전기절약형의 설비들로 개조하는 과정에 창조적지혜와 힘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를 포함한 오랜 기능공들은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설비를 거듭하면서 선들의 절연성을 높이는 등 승승조로 일

청년들을 벽찬 투쟁속에서 더욱 억세게

충원군당위원회 사업에서

일군들은 물론이고 군핵일군들 모두가 지지해나섰다. 이렇게 해가며 기적의 창조자들은 물론이고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하려는 백여명의 청년들로 불려가 조직되었다.

군당위원회는 청년들에게 첫 과업으로 나라발전투쟁을 맡겼다. 당조직의 믿음에 고마워 부지런히 정전으로 하여 기초공사가 제일 난문이었다. 청년들에게 기초공사를 맡겨주는 군당책임일군의 제안은 높고 일부 일군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당장전 일흔흔이 되는 일군이 되어야 하는 공산시대 조직원들이 안되려는 청년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의 믿음을 확고하게 했다.

《우리 당의 믿음에 배 세진 청년들에게 정전으로 하여 기초공사를 맡겨주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맡겨주는 공산시대 조직원들이 안되려는 청년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의 믿음을 확고하게 했다.》

《우리 당의 믿음에 배 세진 청년들에게 정전으로 하여 기초공사를 맡겨주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맡겨주는 공산시대 조직원들이 안되려는 청년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의 믿음을 확고하게 했다.》

우 선 적 인 사 업

우 시 군 도 시 건설 대 에서

이것이 군도시건설대의 일군들과 총일원들의 마음을 띠우고 있는 뜨거운 후대판이었다.

학교를 도와주는 일에 언제나 변함이 없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들여주는 이들이 교육자들에게는 언제나 큰 힘과 고무로 되었다.

그들을 바라며 교원들은 생 각하였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

우 선 적 인 사 업

우 시 군 도 시 건설 대 에서

이것이 군도시건설대의 일군들과 총일원들의 마음을 띠우고 있는 뜨거운 후대판이었다.

학교를 도와주는 일에 언제나 변함이 없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들여주는 이들이 교육자들에게는 언제나 큰 힘과 고무로 되었다.

그들을 바라며 교원들은 생 각하였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

우 선 적 인 사 업

우 시 군 도 시 건설 대 에서

이것이 군도시건설대의 일군들과 총일원들의 마음을 띠우고 있는 뜨거운 후대판이었다.

학교를 도와주는 일에 언제나 변함이 없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들여주는 이들이 교육자들에게는 언제나 큰 힘과 고무로 되었다.

그들을 바라며 교원들은 생 각하였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

우 선 적 인 사 업

우 시 군 도 시 건설 대 에서

이것이 군도시건설대의 일군들과 총일원들의 마음을 띠우고 있는 뜨거운 후대판이었다.

학교를 도와주는 일에 언제나 변함이 없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들여주는 이들이 교육자들에게는 언제나 큰 힘과 고무로 되었다.

그들을 바라며 교원들은 생 각하였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

독자의 편지

가슴속에 흘러든 혈육의 정

어머니와 함께 제가 해주의학 대학 해주시제 1인민병원을 다녀온 저녁이었습니다.

뜻밖에도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놀라와하는 어머니에게 그들은 이제부터 영예군인인 아들의 치료는 자기들이 맡겠다고 보약들과 영양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파장 정명수선생님을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은 제주 저의 집을 찾아와 집전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애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곁에 있기에, 회복한 내가정에 안겨달라 하여 저는 비록 침상에 누워있어도 행복한 삶을 누려갑니다.

해주시 남산동 8인민반 지철 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브라질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철학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4일 델타바나 로 우세브 브라질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선상에서 대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델타바나 로 우세브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뜻깊은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브라질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철학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4일 델타바나 로 우세브 브라질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선상에서 대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델타바나 로 우세브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뜻깊은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브라질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철학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4일 델타바나 로 우세브 브라질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선상에서 대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델타바나 로 우세브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뜻깊은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겨울철 생산준비를 잘 갖추고 추운겨울을 본태있게 벌리자

계절을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

석탄공업성에서

겨울철이 다가오고있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석탄공업성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석탄공업성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석탄공업성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높이 발휘되고있다. 성에서는 탄광들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각각 탄광들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성에서는 탄광들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지휘해나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장마가 끝나는 시기에 벌써 성에서는 참회회의가 진행되고있다.

각각 탄광들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성에서는 탄광들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준비를 위한 수습계 항목의 기본지표와 세부지표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단행할 방침이다.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물품은 현실에서 탄광기업소와 탄광기업소들과 어깨를 결고 함께 밭이 갈도록 막강집을 걸으며 겨울철생산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의 선수를 출세케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직을 해주어 공사가 제기에 끝나다도록 도와주었다. 성일군들의 노력으로 일부 탄광들이 현행생산준비상태에 몰두하면서 겨울철생산준비를 차질없이 이루어져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현상들도 극복되고 있다.

탄광들에서 계절이 앞당겨졌다. 겨울철생산준비에서 기본지표인 예비비확보조건에 맞게 석탄반출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계획성있게 벌어졌는데 물품이 갖추어지고 산업도로, 문화후생시설들이 보수되고 있다.

전투시작전에 승리의 담보를

합경남도립업관리국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할 높은 열의로 합경남도립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겨울철생산준비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계획을 일회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현행계획과 전방적인 단계별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대 로 완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산, 광물생산사업소에서 겨울철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석탄공업성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합경남도립업관리국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성에서는 탄광들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무사고급전보장에 큰 힘을

평양철도국 평양전철대에서

평양철도국 평양전철대의 일군들과 수송선사들이 당장 제7차대회를 맞아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평양철도국 평양전철대의 일군들과 수송선사들이 당장 제7차대회를 맞아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성에서는 탄광들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평양철도국 평양전철대의 일군들과 수송선사들이 당장 제7차대회를 맞아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평양철도국 평양전철대의 일군들과 수송선사들이 당장 제7차대회를 맞아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성에서는 탄광들에서 겨울철 생산준비를 앞당겨 빈틈없이 작전한 보람이 짙어지고 있다.

변화에 맞게 전자선로점검 보수를 잘해나가고있다. 기술규정과 표준작업법의 요구대로 드림집의 조절을 잘하여 전자선로점검을 정확히 보장하고있으며 깨끗한 땅을 지니고 전위조절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또한 선로가 복잡하여 다루기 힘든 구간들에 대해서는 조가선이음용리계점검을 비롯한 설비점검을 간지켜 해 나가고있다.

전철대에서는 겨울철피해를 많이 받는 차공의 전자선로들에 단담순회현들을 배치하여 정상적인 보고제도를 세우는것과 함께 기공자들을 미리 확보해놓아 제때에 점검보수할수 있게 하였다.

대에서는 번압기와 유압설비들이 계절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유압차단기와 고속차단기의 정상가동에 대한 점검시험을 정확히 진행해 나가고있다.

겨울철 통나무생산준비를 끝낸 기세로

판교립산사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로동부문에서는 겨울철 통나무생산에 관한 리지를 잘 정하고 미리부터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하며 겨울철에 모든 로력과 설비를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판교립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이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뜻깊은 올해 말까지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적성지사업을 참신하게 벌였다.

사업소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에 들어가게 앞서 그 준비를 착실히 하는데 신작적인 주목을 돌리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우선 설비와 대용원료에 대한 수리정비와 대용원료를 리용하기 위한 준비사업과 함께 부림소관리에도 힘을 넣었다.

금구, 상무작업소에서도 산지에서 일하는 통나무생산자들이 겨울철기간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산지합숙소를 꾸려주었고 그들에게 공급할 물품들을 착실히 준비해놓았다.

지급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은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해놓는데 맞게 통나무생산에서 시작부터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통나무생산자들은 시작부터 잡초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많은 구간의 도로망을 진행하여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였다. 통나무생산자들은 토장건설과 통조끼, 소발구기과 자동차갑갑기를 비롯한 겨울철생산준비를 힘있게 다그쳐 많은 일을 해내고있다.

금구, 상무작업소에서도 산지에서 일하는 통나무생산자들이 겨울철기간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산지합숙소를 꾸려주었고 그들에게 공급할 물품들을 착실히 준비해놓았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생산불적열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덕탄광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애국의 한길로

남포유화분사업소 소장 한윤택동무에 대한 이야기

어 나라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고 자연환경보호에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단원, 비록 자기만한 리더이지만 누구 하나 한민 돌아보면 참으로 끈정을 깨닫게 하는 이 단원에게 참된 주인, 진정한 애국자가 있다.

누가 보진말진, 알아주진말진 수형의 유년관철전, 당정책을 위정적인 한길에서 한윤택동무가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보석 같은 애국의 아들딸은 오늘날 우리 일군들이 어떤 삶과 투쟁의 목표를 내세워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어떻게 헌신분투해야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귀중한 대답으로 된다.

어 나라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고 자연환경보호에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단원, 비록 자기만한 리더이지만 누구 하나 한민 돌아보면 참으로 끈정을 깨닫게 하는 이 단원에게 참된 주인, 진정한 애국자가 있다.

누가 보진말진, 알아주진말진 수형의 유년관철전, 당정책을 위정적인 한길에서 한윤택동무가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보석 같은 애국의 아들딸은 오늘날 우리 일군들이 어떤 삶과 투쟁의 목표를 내세워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어떻게 헌신분투해야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귀중한 대답으로 된다.

한윤택동무는 현재의 그 마음 어리없이 고마웠다. 언젠가 바야 말이 없던 한해, 폐유제생공정을 하루빨리 일체세우기 위해 입술이 부르드고 눈이 충혈되어 뛰어나는 남편의 일을 한가치라도 돕기 위해 한 뜰두름 제사라도 기발함을 안해의 수고라 느껴져 한윤택동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윤택동무가 자재구입으로 뛰어나다는 바쁜 속에서도 그가 가방에 모고있는 유류자재는 향으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빛깔이 아니 몇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진리를 종업원들에게 깨우쳐주었다.

한윤택동무는 현재의 그 마음 어리없이 고마웠다. 언젠가 바야 말이 없던 한해, 폐유제생공정을 하루빨리 일체세우기 위해 입술이 부르드고 눈이 충혈되어 뛰어나는 남편의 일을 한가치라도 돕기 위해 한 뜰두름 제사라도 기발함을 안해의 수고라 느껴져 한윤택동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윤택동무가 자재구입으로 뛰어나다는 바쁜 속에서도 그가 가방에 모고있는 유류자재는 향으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빛깔이 아니 몇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진리를 종업원들에게 깨우쳐주었다.

한윤택동무는 현재의 그 마음 어리없이 고마웠다. 언젠가 바야 말이 없던 한해, 폐유제생공정을 하루빨리 일체세우기 위해 입술이 부르드고 눈이 충혈되어 뛰어나는 남편의 일을 한가치라도 돕기 위해 한 뜰두름 제사라도 기발함을 안해의 수고라 느껴져 한윤택동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윤택동무가 자재구입으로 뛰어나다는 바쁜 속에서도 그가 가방에 모고있는 유류자재는 향으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빛깔이 아니 몇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진리를 종업원들에게 깨우쳐주었다.

한윤택동무는 현재의 그 마음 어리없이 고마웠다. 언젠가 바야 말이 없던 한해, 폐유제생공정을 하루빨리 일체세우기 위해 입술이 부르드고 눈이 충혈되어 뛰어나는 남편의 일을 한가치라도 돕기 위해 한 뜰두름 제사라도 기발함을 안해의 수고라 느껴져 한윤택동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윤택동무가 자재구입으로 뛰어나다는 바쁜 속에서도 그가 가방에 모고있는 유류자재는 향으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빛깔이 아니 몇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진리를 종업원들에게 깨우쳐주었다.

한윤택동무는 현재의 그 마음 어리없이 고마웠다. 언젠가 바야 말이 없던 한해, 폐유제생공정을 하루빨리 일체세우기 위해 입술이 부르드고 눈이 충혈되어 뛰어나는 남편의 일을 한가치라도 돕기 위해 한 뜰두름 제사라도 기발함을 안해의 수고라 느껴져 한윤택동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윤택동무가 자재구입으로 뛰어나다는 바쁜 속에서도 그가 가방에 모고있는 유류자재는 향으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빛깔이 아니 몇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진리를 종업원들에게 깨우쳐주었다.

한윤택동무는 현재의 그 마음 어리없이 고마웠다. 언젠가 바야 말이 없던 한해, 폐유제생공정을 하루빨리 일체세우기 위해 입술이 부르드고 눈이 충혈되어 뛰어나는 남편의 일을 한가치라도 돕기 위해 한 뜰두름 제사라도 기발함을 안해의 수고라 느껴져 한윤택동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윤택동무가 자재구입으로 뛰어나다는 바쁜 속에서도 그가 가방에 모고있는 유류자재는 향으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빛깔이 아니 몇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진리를 종업원들에게 깨우쳐주었다.

량 심 의 선택

저녁엔 어느날이었다. 저너머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린듯 서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윤택동무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바로 몇시간전 어느 한 배수리공장 일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라질듯 물었다.

항을 끼고있어 선박들의 배와 맞고 배수리기지까지 위치하고있는데 이곳에서 배수리기 때문에 적지 않게 예를 먹고있다는 사실이었다.

배수리, 그것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가 보로하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나아가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관철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는 출렁이는 조국의 바다를 류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지그스런 오염구멍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

저도모르게 소스라졌다. 다음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다. 조국을 사랑하는다고, 조국을 위해서라는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서도 어떤 시절부터 그리고 자주 시구절들을 외웠던것은 바로 이

저녁엔 어느날이었다. 저너머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린듯 서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윤택동무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바로 몇시간전 어느 한 배수리공장 일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라질듯 물었다.

항을 끼고있어 선박들의 배와 맞고 배수리기지까지 위치하고있는데 이곳에서 배수리기 때문에 적지 않게 예를 먹고있다는 사실이었다.

배수리, 그것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가 보로하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나아가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관철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는 출렁이는 조국의 바다를 류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지그스런 오염구멍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

저도모르게 소스라졌다. 다음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다. 조국을 사랑하는다고, 조국을 위해서라는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서도 어떤 시절부터 그리고 자주 시구절들을 외웠던것은 바로 이

저녁엔 어느날이었다. 저너머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린듯 서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윤택동무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바로 몇시간전 어느 한 배수리공장 일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라질듯 물었다.

항을 끼고있어 선박들의 배와 맞고 배수리기지까지 위치하고있는데 이곳에서 배수리기 때문에 적지 않게 예를 먹고있다는 사실이었다.

배수리, 그것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가 보로하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나아가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관철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는 출렁이는 조국의 바다를 류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지그스런 오염구멍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

저도모르게 소스라졌다. 다음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다. 조국을 사랑하는다고, 조국을 위해서라는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서도 어떤 시절부터 그리고 자주 시구절들을 외웠던것은 바로 이

저녁엔 어느날이었다. 저너머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린듯 서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윤택동무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바로 몇시간전 어느 한 배수리공장 일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라질듯 물었다.

항을 끼고있어 선박들의 배와 맞고 배수리기지까지 위치하고있는데 이곳에서 배수리기 때문에 적지 않게 예를 먹고있다는 사실이었다.

배수리, 그것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가 보로하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나아가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관철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는 출렁이는 조국의 바다를 류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지그스런 오염구멍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

저도모르게 소스라졌다. 다음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다. 조국을 사랑하는다고, 조국을 위해서라는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서도 어떤 시절부터 그리고 자주 시구절들을 외웠던것은 바로 이

저녁엔 어느날이었다. 저너머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린듯 서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윤택동무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바로 몇시간전 어느 한 배수리공장 일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라질듯 물었다.

항을 끼고있어 선박들의 배와 맞고 배수리기지까지 위치하고있는데 이곳에서 배수리기 때문에 적지 않게 예를 먹고있다는 사실이었다.

배수리, 그것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가 보로하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나아가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관철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는 출렁이는 조국의 바다를 류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지그스런 오염구멍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

저도모르게 소스라졌다. 다음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다. 조국을 사랑하는다고, 조국을 위해서라는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서도 어떤 시절부터 그리고 자주 시구절들을 외웠던것은 바로 이

저녁엔 어느날이었다. 저너머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린듯 서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윤택동무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바로 몇시간전 어느 한 배수리공장 일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라질듯 물었다.

항을 끼고있어 선박들의 배와 맞고 배수리기지까지 위치하고있는데 이곳에서 배수리기 때문에 적지 않게 예를 먹고있다는 사실이었다.

배수리, 그것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가 보로하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나아가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관철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는 출렁이는 조국의 바다를 류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지그스런 오염구멍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

저도모르게 소스라졌다. 다음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다. 조국을 사랑하는다고, 조국을 위해서라는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서도 어떤 시절부터 그리고 자주 시구절들을 외웠던것은 바로 이

저녁엔 어느날이었다. 저너머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린듯 서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윤택동무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바로 몇시간전 어느 한 배수리공장 일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라질듯 물었다.

항을 끼고있어 선박들의 배와 맞고 배수리기지까지 위치하고있는데 이곳에서 배수리기 때문에 적지 않게 예를 먹고있다는 사실이었다.

배수리, 그것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가 보로하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나아가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관철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는 출렁이는 조국의 바다를 류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지그스런 오염구멍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

저도모르게 소스라졌다. 다음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다. 조국을 사랑하는다고, 조국을 위해서라는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서도 어떤 시절부터 그리고 자주 시구절들을 외웠던것은 바로 이

저녁엔 어느날이었다. 저너머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린듯 서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윤택동무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바로 몇시간전 어느 한 배수리공장 일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라질듯 물었다.

항을 끼고있어 선박들의 배와 맞고 배수리기지까지 위치하고있는데 이곳에서 배수리기 때문에 적지 않게 예를 먹고있다는 사실이었다.

배수리, 그것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가 보로하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나아가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관철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는 출렁이는 조국의 바다를 류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지그스런 오염구멍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

저도모르게 소스라졌다. 다음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렸다. 조국을 사랑하는다고, 조국을 위해서라는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서도 어떤 시절부터 그리고 자주 시구절들을 외웠던것은 바로 이

